



참부모님 특별지침 및 말씀

천일국 13년 천력 1월 3일(2025.1.31.) 오전 8시, 참어머님께서 천정궁에서 열린 지도자 집회에서 보고기도 마무리를 “Holy Mother Han을 모신 축복가정 (기도자 이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주”로 하도록 특별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날 말씀을 천무원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세계 대륙·지구본부·각 교회·축복가정 식구에게 공유합니다.

■ 모든 기도 내용 끝에 “Holy Mother Han을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주.”입니다. 전 세계 통일입니다.

■ 인류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중심에는 Holy Mother Han과 하나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월 2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골든 크레인스 클럽(Golden Cranes Club) 식구들이 무릎을 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Holy Mother Han과 하나 된, 모신 모든 축복가정들이 책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Holy Mother Han입니다. 특히 천일국 13년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게 된 중심에 Holy Mother Han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권도 그렇고 세계 만민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는 그동안 감춰졌던 하늘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한 가족, 세계평화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리 되지 못해서 오늘날의 타락한 인류를 만들어 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반드시 완성을 보셔야 합니다. 시작하셨으니 그냥 제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섭리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통해서 하신 것입

니다. 중심인물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탕감을 치러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4천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는데, 어떻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탄생시킨 것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년간 목수의 조수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글씨를 모르는 여인도 아닐 텐데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을까요?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3년 공생애 노정을 떠나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했습니다.

‘다시 오마’ 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도들이 성령의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가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시 오마’ 했습니까?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생각해야 했는데 남성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독생자’고 ‘믿는 사람들은 신부’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2천년 역사는 남성 위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본질, 창조주의 본질, 원칙은 쌍입니다. 독생자가 나왔으면 독생녀가 탄생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독생자를 탄생시켰으나 뭐가 따랐습니까? 탕감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 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고객하며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도 모릅니다. 자기의 책임이 어떠한 책임이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도 모릅니다. 창조 원칙.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민족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한민족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환경권에서 독생녀는 탄생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보게 되면 특별한 민족이라는 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전에 평양을 중심삼고 미국의 장로회에 신령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중 한 사람을 그때 한국 이씨 왕조도 핍박을 했고,

일본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집에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자기는 한국에 남아 있겠다, 그런 내용을 남기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루비 켄드릭(여, 1883~1908)입니다. 그때 한국에 선교 왔던 선교사들은 다 이 나라가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생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 독생녀가 194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이 독생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와 공산으로 갈라졌습니다. 소련을 중심한 이북은 남침할 준비를 다하고 있을 때, 남한은 아직 체제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외삼촌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한으로 와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북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엔의 16개국 이상이 한국 동란에, 그것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의 동란에 참전해서 짧은 피를 흘렸을까요? 그것은 하늘이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 6천년을 기다려 오신 하늘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부모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안 좋았지만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참부모 탄생으로 말미암아 축복가정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가정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 “Holy Mother Han을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입니다. 모든 기도가. 알겠습니까? Holy Mother Han입니다. 천일국 13년을 하늘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셨는지 압니까? 나 자신도 혼자 걸어온 길입니다.

■ 미래의 희망은 2세권·3세권들입니다. 하나가 돼서 퓨어워터로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넓게 높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뿐만 아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인류 한 가족 세계가 되면

오늘날 전쟁은 필요 없습니다. 형제국입니다. 부모를 모신 형제입니다. 싸우면 안 되잖아요. 다 부모 앞에 효도해야 되잖아요. 효도하는 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이 황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나에게 감사 감사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애기입니다.

■ 기독교도, 세계 종교계도 Holy Mother Han입니다. Holy Mother Han을 모시면 다 발전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은 생명을 탄생시킨 하늘어머니가 주인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하나 되면 가정에, 나라에, 세계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운아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나와 인연이 됐나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탄감을 남기면 안 됩니다.

내가 효동원에 이 시대 나와 함께 섭리의 길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세워주겠다, 했습니다. 대대손손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Holy Mother Han이 살았던 시대에 우리 부모가 동참했다’ 얼마나 후대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다 알면서 섭리를 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나왔습니다. 기원절 천일국은 Holy Mother Han이 하늘부모님을 실제로 모시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 돼야 합니다.

■ 섭리 역사·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Holy Mother Han입니다. 지금 시대는 나와 하나 돼야 합니다. 나와 하나 돼서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사는 때입니다. 천일국 13년이 그냥 13년이 된 게 아닙니다.

■ 섭리 완성의 중심은 독생녀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 일제하에 있을 때 독생녀가 탄생이 되었고, 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남과 북으로 민주와 공산으로 갈렸습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남성 중심으로는 안 됩니다. Holy Mother Han을 모신 정치인, 모신 기독교, 모신 이 나라 백성이

되어야지 신통일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동안은 참부모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실제로 하늘부모님이 Holy Mother Han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이 황금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